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 가족외 관계 및 직무만족이 행복심리에 미치는 영향*

곽금주¹⁾

민하영²⁾

김경은³⁾

최지영⁴⁾

전숙영⁵⁾

서울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남서울대학교

한남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규명 및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 소재 직장에 다니는 40대 이상 60대 미만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직무만족, 행복심리에 관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의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MANOVA,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연구문제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검증 결과 첫째, 40대 중년 직장 남성과 50대 중년 직장 남성이 지각하는 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친구관계, 직장동료관계, 직무만족, 행복심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40대와 50대 모두 행복심리는 가족관계(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관계, 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40대 중년 직장 남성과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다. 40대 중년 직장 남성의 경우 직무만족이 가장 큰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경우 부부관계가 직무만족보다 더 큰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중년 직장 남성, 행복심리, 가족관계, 가족외 관계, 직무만족

* 이 연구는 2011년 6월 4일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으로 SK텔레콤에서 연구비지원을 받은 것임.

1)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2) 교신저자 :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E-mail : hymin@cu.ac.kr)

3)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4)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5)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I. 서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절이 변화하듯 인간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해 간다. 4계절처럼 인생을 넷으로 나눈다면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할 수 있다(Levinson, 1986). 이중 중년기는 인생의 반이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인생의 반을 시작하는 시점 또는 인생의 반을 차지하는 시점 또는 이제 시작될 나머지 반의 시작점에 서 있음을 의미하는 중년기는 완숙 또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논어에서는 중년을 일컬어 사물의 이치에 의문나는 점이 없는 불혹(不惑)의 나이 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불혹이나 지천명이 뜻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중년은 분명 완성의 의미를 갖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완성이라는 긍정적 의미보다 쇠퇴와 같은 부정적 의미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경제 중년의 뒷에 빠졌다’ ‘중년의 뒷’ ‘중년의 위기’ ‘고개숙인 중년’이라는 용어(고기숙, 2003; 김명자, 김애순, 1993; 박성연, 1989; 신기영, 옥선화, 1991)에서 나오듯이 위험과 부진 또는 우울과 낙심, 실패 등을 표현할 때 우리는 중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중년은 인생의 시간적 흐름 즉 생애발달시점에서 우울하고 위기에 차고 걱정하고 위로해야 하는 시기인가?

Erikson(1963)은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인간은 일생을 통해 8단계의 사회심리적 발달과정을

겪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중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생산성(vs 침체감)을 제안했다. Erikson(1963)은 청년기를 지나 노년기가 되기 전까지 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심리적 과제는 생산성(generativity)이라 지적하였다. 생산성이란 다음 세대를 확립하고 지도하고자 하는 관심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 세대를 출산하는 생식적 생산성(procreative)과 과업을 달성하는 생산적 생산성(productive)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적 생산성(creative)으로 생산성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이는 중년기의 발달특성이 매우 진취적이고 전진적이며 긍정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Jung(1954) 역시도 중년을 개성화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기이며 자신과 타인, 개인과 사회, 젊음과 늙음, 삶과 죽음, 남과 여 등과 같은 대극을 극복하고 보다 성숙하고 조화로운 전인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시기이며 영적이고 실존적인 참된 자기를 이룩하는 시기라 하였다(이혁구,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년의 의미는 위기로 표현될 만큼 긍정적이지 못한가? 중년은 위기 속에서도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특성을 위기, 우울, 스트레스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접근(장영철, 이호재, 2005)하기 보다 행복, 삶의 질 등 보다 긍정적 측면(김양호, 2005)에서 접근해 봄으로써 그들의 삶 안에 남아있는 긍정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은 인간의 행동을 동기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중년 남성이 중년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원천 역시 중년

남성이 지니는 행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중년 남성을 심리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의 행복을 행복심리로 기술하였다.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등으로 행복이 표현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복 본연의 용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행복의 주관적 측면을 심리라는 용어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행복심리란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 또는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심리는 주관적 측면이 강조된다(McDowell & Newell, 1996). 따라서 처해있는 상황과 현재의 삶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행복심리는 달라진다. 심리학에서 행복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삶의 질을 연구하면서 부터이다(이훈구, 2004). 행복감 또는 삶의 질로 연구되었던 초기 연구에서는 나이, 성, 수입, 교육 등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도 삶에 대한 각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주관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즉 교육수준, 나이, 성별,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주관적 삶의 질 총 변량이 약 15% 이하(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이며 경제적 부나 생활조건이 행복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경계선을 지나면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크게 떨어진다(Diener, Suh, Smith, & Shao, 1995)는 것이 발견되었다(최명

심, 손정락, 2007). 이에 따라 행복을 의미하는 삶의 질에서는 주관적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Diener 등(Diener, 1984; Diener & Diener, 1995; Diener, Suh, Lucas, & Smith, 1999)을 주축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행복심리에서 강조되었다. 그러나 Ryff와 그의 동료들(Ryff, 1989; Ryff & Keyes, 1995; Schmutte & Ryff, 1997)은 주관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와 같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Diener 등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행복이나 만족과 같은 정서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안했다. 양질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원활하게 기능하는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정서적 안녕감처럼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초점을 두기보다 인간으로써 성장하고 개발하고, 목표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질적 유대를 형성하는 등의 실존적 도전감과 성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과 같은 심리적 측면과 기능을 강조하는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로 삶의 질이나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 주장(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Ryff & Keyes, 1995)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으로 Copmton(2005)의 자아실현적 행복감(신민희, 구재선, 2010)을 반영한다(민하영, 2010).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아실현적 행복감을 반영하는 Ryff의 심리적 안녕감을 행복심리의 기준으로 선택하여 중년 남성의 행복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월소득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교육수준, 나이, 성별,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설명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20-60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행복한 삶에 대한 연구(김명소 등 2003)에서 경제력이 모든 연령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친구 그리고 일의 3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가족을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인간은 가족을 통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족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안녕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가족관계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중요하다. 가족관계에서 남성은 부모역할, 배우자 역할, 자식역할 등 다중역할을 수행한다(한경혜, 1998). 가정 내 다중 역할에서 만족할 때 중년 남성의 행복심리도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남녀의 구분없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가족생활의 만족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떤 삶의 영역보다 매우 높다고 보고(Campbell, 1981)되고 있다. 또한 97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가영희(2006)의 연구에서도 성인 남녀의 삶의 질은 직장생

활만족, 여가생활만족, 가정생활만족 가운데 가정생활만족에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가족은 중년 남성의 심리적 만족의 의미있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는 아이의 아빠, 아내의 남편, 그리고 부모님의 아들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을 탐색할 경우 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를 가족관계로 두고 이에 대한 중년 직장 남성의 인식을 토대로 행복심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중년 직장 남성의 경우,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정생활 외에도 중년 남성의 사회적 대인 관계 즉 친구관계 및 직장 동료와의 관계 역시 심리적 만족감인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 집단주의적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는 개인주의적 사회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보다 높은 스트레스의 완충역할을 한다고 지적(Triandis, 1989)하고 있다. 이는 집단주의적 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 직계가족이 가장 중요한 집단이지만 그 다음으로 친구, 직장동료가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보다 더 중요한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종한, 1992). 이를 고려해 볼 때 친구나 직장동료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친구나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가족외 관계로 두고 친

구와 직장동료에 대한 중년 직장 남성의 인식을 토대로 행복심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가족관계와 가족의 관계와 함께 일터인 직장에서의 만족감을 고려할 수 있다.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산업자본주의 출현과 함께 뚜렷해지면서 남성에게 일터는 성공과 실패 즉 성패를 다루는 곳이며, 가정은 직장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곳(sweet home)으로 인식되었다(Barnett, Marshall, & Pleck, 1992).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남성은 전통적으로 일터에서 생계부양자로서 역할할 것을,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자로서 역할할 것이 기대되었다. 남성에게는 일을, 여성에게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었다(Gutek, Nakamura, & Nieva, 1981). 남성의 역할이 먹을 것을 구해오는 도구적 역할이라면, 여성의 역할은 관계적이며 표현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Parsons와 Bales(1955)는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은 도구지향적이며 기능적인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성은 친화적이며 정서적이며 표현지향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 개념은 성평등적 시각에 의해 상당히 퇴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삶에서 여전히 직장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사회 중년 남성들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 몰두하는 경향이 높다(김태현, 김양호, 2003). 중년 남성의 역할이 생계부양자라는 의식은 청소년 자녀가 바라보는 아버지 이미지(상) 중 가장 강한 이미지가 가족의 부양자라는 것(최명선, 조

선화, 2005)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생계부양자로서 역할해야 하는 장소인 직장에서의 만족감은 직장관계 측면에서,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년 직장 남성의 직장관계를 직무만족으로 접근한 후, 이를 행복심리와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40대와 50대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40대와 50대를 구분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발달단계상 40대와 50대는 함께 중년기로 구분되기도 불구하고 각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세대적 특성을 고려해 보면, 40에서 49세까지의 40대 중년과 50에서 59세까지의 50대 중년은 이질적 코호트(cohort)일 수 있기 때문이다. 40대는 X세대로 불리우는 반면 50대는 베이비 붐 세대로 불리운다. 40대는 약 1980년 시기부터 1990년대에 대학생활을 경험했다면 50대는 1970년에서 1980년 시기에 대학생활을 경험했다. 40대는 경제부흥 세대에서 대중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라면 50대는 경제제일주의 성장세대에서 일괄적이고 공통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라 할 수 있다(민하영, 김경은, 2011). 이는 40대와 50대가 서로 다른 세대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년 직장남성을 40대와 50대로 구분해 이들이 생각하는 가족관계(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 행복심리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행복심리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40대와 50대가 중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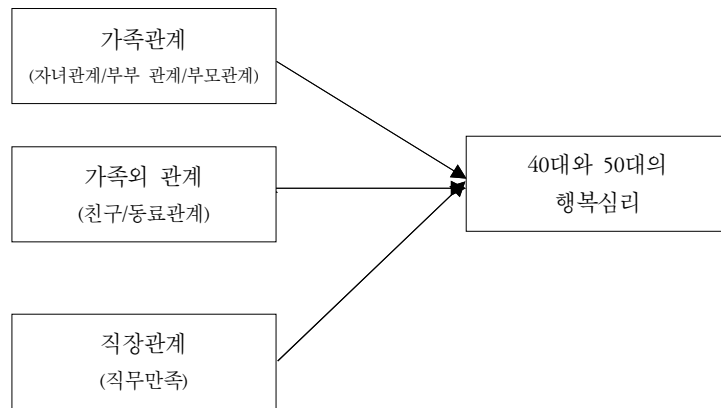


그림 1.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대한 가족관계, 가족외 관계, 직장관계의 영향

라는 생애발달범주에 함께 위치시켜 놓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그림 1 참조)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연구문제 1. 40대와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자녀관계/부부 관계/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 행복심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관계(자녀관계/부부 관계/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 중 40대와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변인 간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의 결과는 40대와 50대의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또는 중년기 남성을 아버지를 둔 청소년이나 남편을 둔 아내 그리고 아들을 둔 노년기 부모를 상담하거나 교육

할 때 또는 조언하거나 지도할 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경기 지역내 직장에 다니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장인 남성 61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40대는 425명(68.8%), 50대는 193명(31.2%)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4·50대 조사대상자 중 195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113명(18.3%), 1960-69년대 출생한 사람은 370명(59.9%), 19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135명(21.8%)으로 나타났다.

2. 연구척도

자녀관계

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Berry와 Rao(1997)의 PSS(Parental Stress Scale)를 번안하여 일부 수

표 1. 조사대상 중년 직장 남성의 일반적 특성 (n=618)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결혼 기간	10년 미만	75(12.1)	직장 생활 기간	10년 미만	56(9.1)
	10-20년 미만	346(56.0)		10-20년 미만	286(46.3)
	30년 이상	19.1(30.9)		20-30년 미만	208(33.7)
	결측	6(1.0)		30년 이상	50(8.1)
아내 직업	전업아내	321(51.9)	이직 경험	결측	18(2.9)
	취업아내	296(47.9)		없다	259(41.9)
	결측	1(0.2)		있다	352(57.0)
최종 학력	고교	157(25.4)	월평균 소득	결측	7(1.1)
	전문대학	65(10.5)		300만원 미만	141(22.8)
	대학교	277(44.8)		300-400만원 미만	142(23.0)
	대학원이상	109(17.6)		400-500만원 미만	148(23.9)
	기타	8(1.3)		500만원 이상	181(29.3)
	결측	2(0.3)		결측	6(1.0)
직종	전문관리직	104(16.8)	주택 소유	있다	467(75.6)
	사무직	224(36.2)		없다	148(23.9)
	서비스/생산직	174(28.2)		결측	3(0.5)
	기타	105(17.0)	군복무	현역	425(68.8)
	결측	11(1.8)		방위 또는 공익근무	131(21.2)
직위	사원급	56(9.1)		미필	59(9.5)
	대리급	39(6.3)	건강	결측	3(0.5)
	과장 혹은 차장	217(35.1)		매우 좋지 않음	9(1.5)
	부장급	119(19.3)		좋지 않음	31(5.0)
	임원급	58(9.4)		보통	274(44.3)
	기타	114(18.4)		좋음	236(38.2)
	결측	15(2.4)		매우 좋음	62(10.0)
				결측	6(1.0)

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내 자녀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녀들은
아버지로서의 내 모습에 만족한다’ 등과 같이

중년 남성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의 친밀도
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

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를 4점 리커트로 측정하였다. 8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78이다. 응답가능 점수는 8-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높은 친밀과 긍정성을 느끼는 것으로 자녀관계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이경희(1995)의 부부친밀감 척도 중 인지적 친밀감과 정서적 친밀감 문항을 토대로 부부관계 척도를 구성하였다. '나와 아내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나' 등과 같은 인지적 친밀감 문항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등의 정서적 친밀감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를 4점 리커트로 측정하였다. 응답가능 점수는 8-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긍정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부관계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8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2로 나타났다.

부모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김명자, 안선영, 한정화(1996)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부모님 때문에 아내 및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 아쉽다' 등 중년 남성이 지각하는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측

정하는 것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측정된 점수는 모두 역산 처리하였다. 응답가능 점수는 5-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2로 나타났다.

친구/동료관계

친구/동료관계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이용해 각각 측정하였다. 즉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친구나 동료를 통해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에 대한 지각의 정도를 의미한다. '나의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준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충고해 준다', '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등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측정되었다.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친구관계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79였으며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직장동료관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1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각각 4-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 만큼 친구/동료관계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직무만족

직장관계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Smith,

Kendall과 Hulin(1969)이 개발한 JDI(Job Description Instrument)를 신은경(2002)이 국내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한 직무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나의 적성과 잘 맞다’, ‘현재 직장의 근무시간은 적당하다’, ‘현재 받는 보수에 대하여 만족한다.’, ‘현재 직장의 승진기회에 대하여 만족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측정되었으며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91로 나타났다. 응답가능 범위는 16-6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행복심리

행복심리는 Ryff(1989)의 심리적 긍정적 기능(Psychological Positive Functioning)을 장혜란, 박선진, 이순철(2009)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행복심리 문항은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한다’, ‘나는 내 성격 대부분을 좋아한다’ 등을 포함한다. 18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측정하였다.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4로 나타났다. 응답범위는 각각 18-12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심리인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2011년 1월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적절치 못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본조사 실시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체크하였다. 본조사는 2011년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이루어졌다. 서울 및 경기 지역 내 직장에 다니는 35세 이상 60세 미만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봉투에 밀봉된 질문지를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하였으며 응답된 질문지는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수거하였다. 총 998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질문지 중 40세 미만 자료(286부, 28.7%), 자녀가 없는 자료(99부, 34.6%), 미혼인 자료(24부, 2.4%) 및 부실기재 된 자료(58부, 5.8%)는 모두 제외하였다. 이에 618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7.0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MANOVA,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연구문제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40대와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자녀관계/부부 관계/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 행복심리는 유

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전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표 2 참조). 각 변인을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자녀관계, 부부관계, 친구, 동료관계, 직무만족, 행복심리 모두 문항 평균 2이상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3이상인 것은 부모관계($M(SD)$ 3.04(.57))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 값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를 4점 처리했음을 고려해 볼 때,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만족한 것은 부모관계라 할 수

있다. 한편 직무만족은 평균 2이상의 값이 나왔지만 자녀관계($M(SD)$ 2.97(.46)), 부부관계($M(SD)$ 2.97(.45)), 부모관계($M(SD)$ 3.04(.57)), 친구관계($M(SD)$ 2.95(.40)), 동료관계($M(SD)$ 2.87(.42))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M(SD)$ 2.61(.46))을 나타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40대와 50대 모두 직무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40대 중년 직장 남성이 50대가 될 때까지 크게 변함없이 직장생활에서 ‘만족한 편이다’라는 느낌을 지니지 못한 채 생활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 가족외 관계, 직장관계, 행복심리를 40대와 50대 연령에 따

표 2. 중년 직장 남성의 남성의 가족관계, 가족외 관계, 직장관계, 행복심리의 최소-최대값,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변인(문항수) 4점 척도	최소-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문항수
가족관계	자녀관계(8)	13-32	23.77(3.71)	2.97(.46)
	부부관계(8)	11-32	23.89(3.46)	2.97(.45)
	부모관계(5)	5-20	15.28(2.81)	3.04(.57)
가족외 관계	친구관계(4)	4-16	11.80(1.58)	2.95(.40)
	동료관계(4)	4-16	11.47(1.69)	2.87(.42)
직장관계	직무만족(16)	20-64	42.72(7.19)	2.61(.46)
	행복심리(18)	23-72	51.22(5.73)	2.84(.32)

표 3.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 가족외 관계, 직장관계, 행복심리의 연령 차이(다변량분석) ($n=590$)

연령 구분	가족관계			가족외 관계		직장관계 직무만족	행복심리	Wilk's Lambda λ	F 값 (df)
	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40대 (408)	2.99 (.45)	2.96 (.45)	3.03 (.55)	2.95 (.38)	2.85 (.41)	2.59 (.45)	2.84 (.32)	.99	1.10 (7, 508)
50대 (182)	2.95 (.49)	3.00 (.45)	23.10 (.61)	2.94 (.44)	2.89 (.46)	2.63 (.49)	2.84 (.32)		

라 다변량분석한 결과, 연령대 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10$, ns). 가족관계 중 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가족외 관계 중 친구관계, 동료관계 그리고 직장관계의 직무만족과 행복심리는 40대와 50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관계(자녀관계/부부 관계/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 중 40대와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변인간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자녀관계/부부 관계/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 중 40대와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통해 우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족관계(자녀관계/부부 관계/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는 40대와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이들 변인 중 40대와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전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알아보았다. 공차한계값인 Tolerance는 40대는 .76에서 .89, 50대는 .71에서 .90으로 4-50대 전체는 .77에서 .86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산팽창계수 VIF값 역시 40대는 1.12-1.31, 50대는 1.11-1.36,

4-50대 전체는 1.17-1.3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값은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값(양병화, 2002)이다. 한편 더 빈 왓슨 계수인 D-W는 40대는 1.97, 50대는 1.95, 4-50대 전체는 1.94로 나타났다. 이는 오차항간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성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성 배제와 오차항간 자기상관 배제 등이 나타났으므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기초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40대와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미치는 가족관계(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관계, 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과정에서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은 1단계에서 월소득을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월소득은 행복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규명(김명소 등, 2003; 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가족외 관계, 직장관계가 행복심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월소득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1단계에서 월소득을 통제하였으며, 각 독립변인에 대해서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표 5 참조). 분석결과 40대의 행복심리는 통제변인인 월소득($\beta=.01$, $p<.01$)과 직무만족($\beta=.39$, $p<.001$), 부부관계($\beta=.25$, $p<.001$), 자녀관계($\beta=.17$, $p<.001$), 친구관계($\beta=.14$, $p<.01$), 부모관계($\beta=.08$, $p<.05$)에 의해 48% 설명($_{adj}R^2=.48$)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행복심리를 설명하는데

표 4. 중년 직장 남성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구분	40대 변인	월소득	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직무만족	행복심리
40대 (n=423)	월소득	1							
	자녀관계	.13***	1						
	부부관계	.03	.35***	1					
	부모관계	.19***	.33***	.35***	1				
	친구관계	.04*	.27***	.33***	.13***	1			
	동료관계	.09**	.20***	.27***	.12**	.62***	1		
	직무만족	.34***	.33***	.24***	.24*	.19***	.30***	1	
	행복심리	.18***	.45***	.47***	.34***	.33***	.28***	.55***	1
50대 (n=189)	월소득	1							
	자녀관계	.13	1						
	부부관계	.12	.41***	1					
	부모관계	.17*	.34***	.27***	1				
	친구관계	.13	.25***	.37***	.21**	1			
	동료관계	.09	.30***	.37***	.12	.78***	1		
	직무만족	.42***	.20**	.13	.21**	.37***	.42***	1	
	행복심리	.32***	.30***	.44***	.33***	.44***	.42***	.41***	1
전체 (n=612)	월소득	1							
	자녀관계	.14***	1						
	부부관계	.05	.37***	1					
	부모관계	.17***	.33***	.33***	1				
	친구관계	.07	.26***	.30***	.16***	1			
	동료관계	.09**	.23***	.31***	.12***	.67***	1		
	직무만족	.37***	.28***	.21***	.23***	.25***	.34***	1	
	행복심리	.23***	.40***	.46***	.33***	.37***	.32***	.50***	1

* $p < .05$, ** $p < .01$, *** $p < .001$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직무만족($\beta=.39$, $p<.001$)으로 나타났다.

50대의 행복심리는 통제변인인 월소득($\beta=.20$, $p<.001$)과 부부관계($\beta=.30$, $p<.01$), 친구관

계($\beta=.19$, $p<.01$), 직무만족($\beta=.18$, $p<.01$), 부모관계($\beta=.16$, $p<.05$)에 의해 41% 설명($adjR^2=.41$)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행복심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

표 5.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에 미치는 영향(중다회귀분석)

변인	구분	40대(406)		50대(178)		전체(584)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상수		.71(.12)		1.10(.17)		.83(.10)		
통제	월소득	.002(.017)	.01**	.04(.01)	.20**	.01(.01)	.06*	
독립	가족 관계	자녀	2.64(.03)	.17***	.01	.09(.03)	.13***	
		부부	.12(.03)	.25***	.21(.05)	.30***	.27***	
		부모	.05(.02)	.08*	.08(.03)	.16*	.06(.02)	.10**
	가족외 관계	친구	.12(.03)	.14**	.14(.05)	.19**	.12(.03)	.14***
		동료	-.05		.09		-.04	
	직장관계	직무만족	.28(.03)	.39***	.12(.04)	.18**	.23(.03)	.33***
<i>F</i> 값(<i>df</i>)		62.02(6, 399)***		25.98(5, 172)***		78.27(6, 577)**		
<i>adjR</i> ²		.48		.41		.44		

종속변수: 행복심리

* $p < .05$, ** $p < .01$, *** $p < .001$

통제변인 외 모든 변인은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결과표를 구성할 때는 가족영역->가족외 영역->직장영역 순으로 기재하였다. 이는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변인이 40대와 50대 사이에 달라 순서를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부관계($\beta=.30$, $p<.001$)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설명력을 가졌던 직무만족($\beta=.18$, $p<.01$)보다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월소득($\beta=.20$, $p<.01$)이 차순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40대와 50대 모든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는 통제변인인 월소득($\beta=.06$, $p<.05$)과 직무만족($\beta=.33$, $p<.001$), 부부관계($\beta=.27$, $p<.001$), 친구관계($\beta=.14$, $p<.001$), 자녀관계($\beta=.13$, $p<.001$), 부모관계($\beta=.10$, $p<.01$)에 의해 44% 설명($adjR^2=.44$)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행복심리를 설명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직무만족($\beta=.33$, $p<.001$)이었으며 그 다음이 부부관계($\beta=.27$, $p<.001$)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서울, 경기 지역내 직장내 근무하는 40세 이상 60세 미만 중년 직장 남성 618명을 대상으로 40대와 50대의 가족관계, 가족외 관계, 직장관계 및 행복심리의 차이 및 행복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관계, 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 변인 규명 및 변인간 상대적 영향력을 질문지 조사를 통해 살펴본 이 연구는 연구문제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40대,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가족관계(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관계, 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

행복심리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출생시기, 대학재학 시기 등 사회문화적 경험 차이에 의해 40대와 50대를 각각 X세대, 베이비 붐세대 등으로 구분하여 이야기 하고 있지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기능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관계, 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 행복심리의 경우 40대와 50대는 분리될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40대와 50대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는 연령별 구분 없이 가족관계(자녀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가족외 관계(친구관계, 동료관계), 직장관계(직무만족)와 모두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 친밀감을 많이 가질수록, 아내와 인지적, 정서적으로 높은 친밀감을 가질수록, 부모 부양의 부담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라 느끼지 않을수록,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직장동료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직장에서 주어진 직무에 만족할수록 더 많은 행복심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설명력은 40대와 50대 사이에 차이를 나타냈다. 40대와 50대 모두 행복심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통제변인인 월소득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50대의 경우 월소득이 행복심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40대에 비해 컸다. 아마도 이 시기는 자녀의 결혼, 분가 등으로 지출이 많아질 뿐 아니라 미래 소득에 대한 발전이 더 이

상 기대되지 않으므로 인해 경제적 요인이 다른 세대와 달리 의미있게 부각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40대와 50대의 행복심리에 월소득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은 행복심리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 유의한 설명변인이라고 지적인 선행연구 결과(김명소 등, 2003)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행복심리에서 경제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인 월소득을 통제했을 때, 40대의 행복심리는 직무만족에서, 50대의 행복심리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가 직무만족에 의해 가장 많이 설명된다는 사실은 직장에서의 만족감이 중년 남성의 심리적 건강에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김태현, 김양호, 2003)와 어느 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40대가 사오정(45세가 정년)으로 비유되고 있음(은퇴가 두려운 한국의 중년, 2011)을 고려해 볼 때 40대 중년 직장 남성의 직무만족이 행복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생애 시기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50대의 경우 직무만족보다 배우자인 아내와의 관계가 행복심리에서 가장 설명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라는 암묵적 눈치 속에서 직장생활해야 하는 50대 직장인 남성에게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의미있는 존재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승진누락이나 좌천 또는 낮은 인사고과 등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년 남성의 행복심리는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에서 가장 큰 위안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배우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우자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40대 남성에게서도 적용될 수 있다. 40대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만족이 직무만족 다음으로 높은 상대적 설명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40대와 50대 모두 가족관계 중 배우자와의 관계가 행복심리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지적한 것은 정서적으로 가깝고 중요한 사람을 기술했기 위해 개발된 호위대 모델에서 내부원(개인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으로 그들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되는 원) 구성원에 아내를 가장 많이 포함시켰다고 보고한 장휘숙(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중년기는 인생에 있어 최고의 절정기이며 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완숙된 시기라 표현된다. 비록 신체적 노화가 나타나고 최고의 절정기로 인해 성취보다 하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지만 불혹(不惑)이며 지천명(知天命)하다고 평가될 만큼 인생에 있어 성숙한 시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중년 직장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심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직장인 중년 남성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하다고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불행하다거나 위기라 표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중년 직장 남성이 중년이 지나는 성숙한 시기로 중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는 그들의 보다 나은 행복심리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중년 직장 남성의 행복심리를 탐색한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매우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중년 여성의 삶의 질, 행복, 만족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신기영, 옥선화, 1991; 윤창영, 이순목, 2002)에 비해 중년 남성의 행복심리(강모성, 전영주, 손태홍, 2008; 한경혜, 1998; 한경혜, 송지은, 2001)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일천하다고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중년 남성의 행복심리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충족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행복심리를 탐색해보고자 했으나 서울 경기 지역에 재직하는 직장인만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함으로서 중년 남성의 행복심리에 관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해야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 연구에서 극복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가영희 (2006). 성인의 직장-가정갈등이 영역별 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163- 186.
- 강모성, 전영주, 손태홍 (2008). 기혼 중년 남성의 직무 및 가족 스트레스와 자살구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05-134.
- 고기숙 (2003).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수자, 한규석, 이은희 (2004).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 개발: 자존심의 매개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243-263.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40.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1-33.
- 김명자, 박성연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97-118.
- 김명자, 안선영, 한정화 (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97-110.
- 김애순 (1993). 중년기 위기감 (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1-14.
- 김양호 (2005). 중년 남성의 건강과 사회관계망 특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103-126.
- 김태현, 김양호 (2003). 중년 남성의 남성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 민하영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삶의 만족도가 애정적-거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137-155.
- 민하영, 김경은 (2011). 세대별 접근을 통한 중년 남자의 행복심리. 2011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4-47.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기영, 옥선화 (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61-178.
- 신민희, 구재선 (2010). 행복과 창의력의 관계: 행복한 사람이 더 창의적이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37-51.
- 신은경 (200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직무불안정·조직몰입 및 직무만족간의 관계.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병화 (2002).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윤창영, 이순목 (2002). 주관적 삶의 질의 구조모형: 기혼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43-72.
- 은퇴가 두려운 한국의 중년(2011. 5. 28). 중앙일보, p.30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 이종한 (1992). 공동체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76-93.
- 이혁구 (1999). 중년의 위기와 개인적 반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149-164.
- 이훈구 (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47-53.
- 장영철, 이호재 (2005). 중년 위기 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인지된 조직지원과 Type A 개인특성의 조절효과-. 기업윤리연구, 9, 127-149.
- 장혜란, 박선진, 이순철 (2009). 고령운전자의

- 이동성(Mobility)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2), 251-271.
- 장휘숙 (2011). 호위대 모델에 기초한 한국 중년 성인들의 가까운 사회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1), 1-18.
- 최명선, 조선휘 (2005). 청소년의 아버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배경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4), 280-291.
- 최명심, 손정락 (2007). 삶의 의미 수준이 자존감, 문제해결 이식도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51-967.
- 한경혜 (1998). 중년기 남성의 역할 주요도와 일/가족 갈등. 가족과 문화, 10(2), 98-113.
- 한경혜, 송지은 (2001). 중년 남성의 건강에 가족 및 직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1), 51-73.
- Barnett, R. C., Marshall, N. L. & Pleck, J. H. (1992). Adult son-parent relationship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so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3, 505-525.
- Berry, J. O. & Rao, J. M. (1997). Balancing employment and fatherhood: A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18(4), 386-413.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CA: Thompson Learning.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 - 575.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1967 to 1997.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Suh, E. M., Smith, H., & Shao, L. (1995).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7-32.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Gutek, B. A., Nakamura, C. Y. & Nieva, V. F. (1981). The interdependence of work and family roles.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 1-16.
- Jung, C. G. (1954).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Collected works (Vol.17), *Bollingen Series XX*, G. Adler, M. Fordham, & H. Read (Eds.) (R. F. C. Hull, Trans.). New York: Pantheon Books.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 3-13
- McDowell, I. & Newell, C. (1996).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2nd Ed.) New York: Oxford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arsons, T. & Bales, F. 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 Free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chmutte, P. S. & Ryff, C. D. (1997). Personality and well-being: Reexamining methods and mean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549-559.
- Smith, P. C., Kendall, L. M., & Hulin, C. L. (1969).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retirement*. Chicago, IL: Rand McNally.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1차 원고접수 : 2011. 6. 29
수정원고접수 : 2011. 8. 13
최종게재결정 : 2011. 8. 26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levels of middle-aged male workers with family relationships, non-family relationships and job satisfaction

Keumjoo Kwak	Ha Yeoung Min	Kyoung-Eun Kim	Jiyoung Choi	Sook-Young Jeon
Dept. of Psychology	Dept. of Child Studies	Dept. of Child Welfare	Dept. of Education	Dept. of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Catholic	NamSeoul	HanNam	Korea Nazarene
University	University of Daegu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aged male workers' family relationships(the child, spouse and parental relationships), non-family relationships(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coworkers) and job satisfaction with happiness. The participants were 618 married middle age men, aged between 40 and 59, and who held jobs in Seoul or Gyeonggi Province.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pf MANOVA, Pearson's correlation, hierarchical and step multiple regressions, using SPSS 17.0.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amily relationships(the child, spouse and parental relationships), non-family relation(friend relationship, coworker relationship), job satisfaction and happiness by age. (2)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s(the child, spouse and parental relationships), non-family relationships(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coworkers) and job satisfaction with happiness for those aged their 40s and 50s.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strongest predictor variable of men in their 40s men and in their 50s in terms of happiness. In the case of men in their 40s, job satisfaction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happiness among all variables. However. in the case of men in their 50s, positive spousal relationships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happiness among all variables.

Key words : middle-aged male workers, happiness, family relationships, non-family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